



[정책동향] 호주, 새로운 '유제품 수출 강화 프로그램'으로 수출확대 도모

- 수출 규제 완화 등으로 유제품 무역기반 강화



호주 정부가 낙농가들의 무역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유제품 수출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최근 농업부는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DA) 및 유관 부서와 협력해 신규 수출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출 규제로 인한 유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수출 진입장벽을 낮춰 무역기반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해 3월 낙농업계의 역량 강화와 유제품 수출 규제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10월에는 호주의 수출 체계 개선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한 새로운 무역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생산자 및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 등 유제품 수출과 관련된 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입국의 수출 및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DA 관계자는 “이를 통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유제품 시장에서 호주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입지를 더욱 넓힘으로서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처 : minister.awe.gov.au, 2월 10일 >

[소비동향] 英,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소비 급증

- 치즈 소비량 15.7%, 요거트·버터 판매량 각각 4.1%, 16.1% ↑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와 급격한 소비패턴 변화로 세계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유제품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영국낙농가협회(RABDF)가 개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주요 유업체 관계자들이 발표한 유제품 시장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 소비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낙농 산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먼저 알라푸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홈쿡이 증가함에 따라 치즈 소비량은 15.7%, 요거트와 버터 판매량은 각각 4.1%, 16.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러 관계자는 시리얼 소비량이 8% 증가함에 따라 우유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3월 이후 봉쇄령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유제품 소비가 늘어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한편, 크림의 경우 브렉시트 발효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른 유제품에 비해 소비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dairyindustries.com, 2월 16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